나주혁신도시 금요일 퇴근 시간 광주행 버스 꽉 찼다

인원 크게 늘어 한전 2000명 돌파
가족 동반 이주율 여전히 미진
아파트값 오르고 외지 출·퇴근
기숙사 셔틀버스는 텅텅 비어
교통·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필요

금요일이었던 지난 12일 오후 6시 30분 한국전력 나주 본사 뒤편 셔틀버스 정류장.

한국전력 임직원 기숙사로 향하는 마지막 셔틀버스는 45인승 자리가 텅 빈 채로 출발했다. 사택에서 지내는 직원들은 주말이면 가족이 있는 서울 등지로 떠나기에 금요일 사택선은 한 명도 싣지 못한 채 운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비슷한 시각 한전KDN 앞 버스 정류장에서는 광주행 좌석 02번 버스를 타기 위한 긴 줄이 늘어졌다. 매성고 인근에서 출발하는 02번 버스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벗어날 때면 '만원'이 된다.

공공기관이 입주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혁신도시 이전인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빈약한 정주여건 탓에 가족을 동반한 이주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18일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과 한전 등에 따르면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16곳의 본사 인원은 올해 9월 기준 7887명으로, 이전 초기였던 2015년 말(6128명)에 비해 1759명(28.7%) 증가했다.

혁신도시 이전인원은 지난 2018년(7360명) 이후 현재까지 7000명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 이전인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한국전력의 경우 지난해 본사 인원이 2000명을 넘겼다.

나주에 둥지를 튼 지난 2014년에는 본사 인원이 1531명이었지만 1619명(2015년)→1739명(2016년)→1783명(2017년)→1813명(2018년)→1870명(2019년)→2057명(2020년)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이전인원은 2060명으로, 7년 새 529명(34.6%)이 늘어났다.

한전은 나주 본사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올 하반기부터 혁신도시 사택(기숙사)을 신축 또는 임차하는 방안을 전남도와 협의하고 있다.

한전 사택 이용인원은 임시숙소(369명)를 포함한 985명으로, 본사 인원(2060명)의 47.8%를 차지하고 있다. 한전 이전인원 10명 가운데 7명은 미혼 등 1인 가구로, 사택이 부족한 탓에 상시적으로 600명 이상 입주를 대기하는 실정이다. 사택에 입주하기까지 평균적으로 기다리는 기간은 2~3년에 달한다. 게다가 사택 임차기간이 오는 2022년 11월 만료를 앞두면서 원룸 사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영구사택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주 금요일(12일) 퇴근 시간 한국전력 나주 본사를 출발하는 사택행 버스(오른쪽)는 텅 비어있는 반면 광주행 급행버스 좌석02번은 만원이다.

일정 구매력을 갖춘 혁신도시 이전인원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경제 유발 효과는 반길 만하다.

하지만 불안정한 거주여건 때문에 본사 근무를 기피하거나 임시숙소 운영 여부에 따라 지역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야기되는 문제는 나주 혁신도시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남았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나주 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은 68.8%로, 제주(81.5%), 부산(77.5%), 전북(73.8%), 울산(70.5%)에 이어 10개 혁신도시 중 5번째를 차지했다. 이는 미혼·독신자가 포함된 수치로, 순환근무와 파견인사에 따라 언제든지 혁신도시를 떠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는 생활편의시설·교육·교통 등 열악한 정주여건 탓에 역외 소비유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나주 혁신도시 주민의 신용카드 소비유형을 살펴보니, 지난 2019년 기준 지출액의 29.8%만 혁신도시 안에서 발생했으며, 5분의 1은 수도권, 3분의 1은 광주에서 이뤄졌다.

한편 나주 혁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외지인의 정착 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일부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3.3㎡) 1100만원으로 뛰기도 했다. 이는 올해 광주시 전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발생한 풍선효과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이 올해 8~10월 석 달 동안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변동 추세를 분석해보니, 한전 인근 A아파트 분양가(33평형)는 7년 전보다 2억7000만원 오른 5억원으로 조사됐다. B아파트는 2012~2013년 2억원에서 올 10월 3억3000만원으로 올랐고, C아파트는 2014~2015년 2억1000만원→3억원, D아파트 2014년 2억5000만원→4억5000만원, E아파트 2015년 2억3000만원→4억원 등으로 최대 2배 넘게 급등했다.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오른쪽 5번째)가 18일 서울에서 개최한 무안 쌀 '순수지향' 판매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농협중앙회 무안 친환경쌀 '순수지향' 판매 개시

서울 하나로클럽서 출시 기념식

무안에서 '우렁이 농법'으로 지은 쌀 '순수지향'이 농협 쌀 대표에 올랐다.

농협중앙회와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18일부터 대한민국 대표 쌀 브랜드 '순수지향'을 선보인다고 이날 밝혔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박서홍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무안·영암·신안), 김대현 무안군의회 의장, 장철훈 농협경제 대표이사 등은 이날 농협유통 양재동 하나로클럽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농협유통 양재동 하나로클럽은 농협양곡의 완전미 비율 95% 이상만 선별해 내놓고 있다.

'순수지향'은 시드피아 바이오가 자체 개발한 '오복진선향' 품종이다.

복합 내병성을 가진 새누리벼와 골드퀸 3호 육성에 사용된 유사계통을 교잡한 고품질 종자이다.

특히 무안에서 '우렁이 농법'을 적용해 친환경 유기농 재배했다. 밥을 지을 때 누룽지향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농협 관계자는 "이 쌀로 밥을 지으면 윤기가 흐르고 맛있는 식감이 24시간 유지된다"며 "아밀로스 함량이 낮아 찰기가 있어 식감이 우수하며, 누룽지향이 풍미를 돋게 한다"고 설명했다.

'순수지향'은 농협몰(nonghyupmall.com)과 지마켓, 옥션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인공지능 카페에서 AI 신기술 체험하세요"

광주 서석동 이달까지 운영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동구 서석동 광주영상복합문화관 1층에서 광주시민이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 문을 연 이 공간은 광주시의 '1기관 1인공지능(AI)' 정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는 광주시민들에게 인공지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지역기업이 개발제품을 실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광주 인공지능 전문기업인 ㈜디투리소스는 2주 동안 제품 사업화 전 시범운영을 통해 내구성 등 작동 상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 업체는 로봇시스템을 활용한 로봇카페와 무인 매장을 운영한다.

디투리소스는 지난해 1월부터 '지역 소프트웨어(SW) 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매장관리 플랫폼 기반 주방 무인화 로봇 시스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탁용석 진흥원장은 "지역 전략산업인 인공지능 산업분야의 시장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인터넷진흥원 쪼개기는 혁신도시 취지 역행"

나주시민단체 개인정보원 설립 반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노동조합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산광산을)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 반발한 가운데 9일 지역 시민단체 6곳도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날 빛가람주민참여연대 등 지역 6개 시민단체는 "한국개인정보원을 설립하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혁신도시 입주기관을 쪼개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려고 하는 혁신도시 조성의 기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는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광주전남혁신도시열린플랫폼, 부영골프장대책시민협의회, 빛가람동주민자치회, 빛가람동상생발전협의체 등 6개 단체가 참여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노동조합이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 인력을 빼내 한국개인정보원을 설립하려는 시도"라며 "삶의 터전을 반강제로 옮긴 이전기관 직원들을 다시 타향으로 내모는 비인도적 행위"라는 성명을 냈다. 진흥원의 개인정보보호본부 소속 직원은 약 150명으로, 이 가운데 130명 안팎이 나주 본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관인 한국개인정보원 설립이 추진된다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기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지원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문성 축적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광주 첨단 3지구에 유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백희준 기자 bhj@

코스피 사흘 연속 하락 2947P

글로벌 인플레 투자심리 위축

코스피가 18일 기관과 외인의 동반 매도세에 하락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04포인트(0.51%) 내린 2947.38에 거래를 마치며 사흘 연속 하락했다.

기관이 1968억원을 순매도하며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유지했다. 외국인은 481억원을 순매도했으나 코스피200 선물 2461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2219억원을 순매수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과 긴축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날 미국 증시가 기업 실적 호조에도 하락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947.38 (-15.04)
↑	코스닥	1032.77 (+1.51)
↓	금리 (국고채 3년)	1.953 (-0.021)
↓	환율 (USD)	1180.40 (-2.10)